

건강을 지키는 현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대변을 걷으러 다녀야 하지만,
보람을 느낍니다.

가검물 수집 막바지에 이른 제5차 전국 장내기생충 감염율 실태조사



'71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되어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율 실태조사의 가검물 수집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기생충검사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요즈음의 상황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채변봉투를 나누어 주고, 또 대변을 수집해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건협 시도지부 직원들의 숨은 노력으로 큰 어려움없이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기생충관리의 총 결산이 되고, 새로운 기생충관리 방향 모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이번 실태조사의 마지막날까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라면서 실태조사 가검물 수집과정의 일들을 이번 호에 실어본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율 조사에 중요한 역할 담당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의 결과만을 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곤 한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의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연구과정, 사람들의 수고 등등은 쉽게 망각되어 버리고, 일이 잘 되었다느니 잘못되었다느니 그 정도라면 나도 쉽게 할 수 있다느니, 공연한 시간낭비였다느니 하는 말들을 듣게 된다. 이런 것을 “콜롬부스의 달걀”에 비유하던가.

'71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되어 와서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율 실태조사가 어떤 측면에서는 앞의 비유에 꼭 들어맞는 경우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기생충 감염율이 꽤나 높았던 '70년대에만 하더라도 각종 기생충 검사들과 함께 이 실태조사는 관련 학자, 정부관련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로 평가되어져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로 기생충 감염율이 현격히 저하된 오늘에 와서는 그동안의 모든 성과는 망각되어 버리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는 기생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충검사 무용론, 실태조사의 불필요성 등이 들먹여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가호호를 방문해
가검물을 수집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건강직원들 웃음을
잃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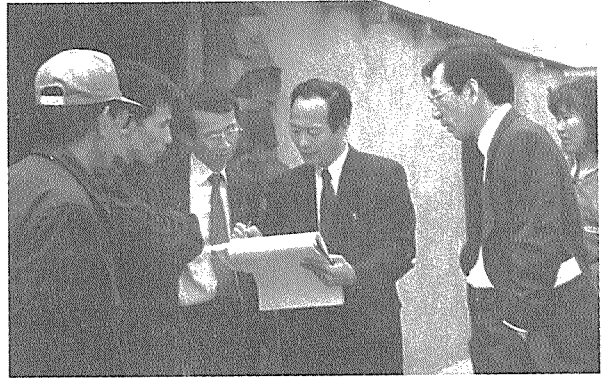
건강을 지키는 현장

● 대변봉투 수집, 11월 중순이면 끝나

어쨌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7월에 시작된 제5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을 실태조사는 많은 건협 시도지부 직원들의 노력으로 어느덧 가검물 수집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실태조사 표본지역을 배정받게 되면 보사부에서 각 시도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해당지역 보건소로, 다시 동사무소로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직원들의 실질적 활동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해당 지역 동사무소의 통담당자를 만나 협조를 부탁하고 이어서 각 가구를 방문해 가구별 카드 작성, 기생충에 관련된 설문조사, 가검물 수집용 봉투 등을 배부하게 되죠. 그런 다음, 가검물 수집날짜를 약속하고, 약속된 날짜에 다시 수집을 나가게 됩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협의 박준영 조사연구과장의 설명이다.

어쩌다 듣게 되는
“수고하십니다”라는
한마디로 모든
어려움은 씻은 듯이
사라진다.



●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가호호 방문

전국적으로 총 4만3천여명의 가검물을 수집해야 하는 이 실태조사의 현장 활동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을 건협 직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이 일이 자신들의 건강에 있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 가검물을 약속한 날짜에 수집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한 집을 여러 번 방문한 경우도 많지만 심지어는 새벽 6시나 밤늦게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건협직원들은 가검물 수집이 끝나는 마지막날까지,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한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가검물 수집 과정에서 가끔씩은 들어보는 “수고하십니다”라는 한마디에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이다.

● 마지막날까지, 주민들의 협조를 기대한다.

여러 달에 걸쳐 이들의 노력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되었고, 이제 11월 중순이면 현장 수집이 모두 마무리 되고 이후에는 검사와 통계처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건협 직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며, 또 아직까지는 기생충 감염율 0%를 달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고, 지속적인 기생충 검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㉘